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제1차

신학포럼

- 일 시 : 2017년 2월 20일 (월) 10:30 ~ 13:00
- 장 소 : 로맹교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4길 31/
02-2661-7121/ 권호 담임목사 사무)
- 발표자 : 이승우 박사 (Stellenbosch University,
Ph. D.)
- 주 제 : Suggestions to overcome
automatization and habitualization of
perception in preaching : Focused on
content of preaching (설교에서 인식의
자동화와 습관화 극복을 위한 제안 :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 신학모범 후 점심식사가 있습니다



이승우 박사

영남대학교 경제학 (B. A.)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Stellenbosch University (Th. M.)
Stellenbosch University (Ph. D.)

Automatization and habitualization of perception disturb the ability to recognize objects, and preaching is no exception. Although various ideas have been suggested for refreshing preaching and overcoming boring preaching, these have only focused on preaching forms and methods. Here, the writer suggests that the content of the preaching can help to overcome the automatization and habitualization of perception. The Gospel and the Bible, the sources of preaching, are strange and mysterious, and not in line with normal human perception. When preaching reveals the true meaning of the Word of God, automatization and habitualization of perception can be overcome.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고 왜곡시킨다. 설교에서도 이런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가 발생한다. 설교를 새롭게 하고 설교의 지루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왔지만 이런 노력들은 지나치게 설교 형식과 방법에 집중되어 왔다. 본 글에서 필자는 설교의 내용을 통해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를 극복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설교의 원천으로서의 성경 그리고 복음은 늘 새롭고 신비로운 특징을 가진다. 설교가 이런 복음의 신비를 제대로 담아 낼 때 설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는 극복될 수 있다.